

실적 최고인데 주가는 흔들... 코스피 반등 열쇠는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매도세' 지속
삼전·하이닉스 영업이익만 80조
외인 복귀, 중동 리스크 해소 관건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호조에도 코스피에서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역대급 매도세 중 하나입니다.”
7일 A자산운용사 주식 담당자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는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파는 걸 보면 추가 조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운용사는 최근 중동 전쟁이 확산하자 주식·펀드 운용에 대한 포지션을 ‘헤지(위험 방어)’로 바꿨다.

60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를 널뛰기 한 건 외국인 투자자다. 외국인은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지난달 3일부터 이날까지 단 5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주식을 팔아치웠다. 하루 1조원 넘게 판 적도 13번이나 됐다.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35조 6000만원에 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 복귀 여부는 중동 지역 리스크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 ‘셀 반도체’ 외국인

중동 전쟁 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업종은 반도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8조 7097억원을 순매도

했고, SK하이닉스도 7조 7680억원어치 팔았다. 월산자산운용 펀드매니저 매튜 하우스트는 블룸버그에 “전쟁과 메모리(반도체)라는 두 가지 역풍이 동시에 불고 있어 현재 한국 주식에는 손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드 캐피탈 파트너스의 최고투자책임자 제럴드 갠도 “전쟁이 앞으로 한두 달 더 장기화한다면,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국 주식 투자를 다시 검토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증권가에서는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성격이 짙다는데 무게를 싣는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애초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집중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포트폴리오 싹쓸 방지를 위한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반도체 주가가 계속 급등한다면, 외국인은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도 외국인 편이 아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504.2원에 마감했다. ‘환율 상승→ 외국인 이탈’의 악순환 우려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 매도 압력을 키운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매도를 유도한다. 환율 상승세가 꺾이

지 않는 한 외국인 수급 반전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가 급등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점도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순한 원유 시장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기존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내렸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0.9%포인트 올랐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물가상승률이 3%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력을 떨어뜨린다.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지면서 투자할 유인이 적어졌다는 평가다.

◆ 중동 리스크 해소에 달려

외국인은 국내 증시의 주요 수급 주체다. 주가 반등 여부가 외국인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통상 한국 주가지수와 외국인 순매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단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이 한국증시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기업 실적은 외국인 투자 유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196곳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42조 2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58조 7315억원 대비 1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상승분의 대부분은 반도체 투동에 쏠린다.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57조 2000억원, 매출은 42% 불어난 133조원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32조원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만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62.7%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려면 중동 전쟁이 진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노무라 “중동 전쟁이 2~6개월간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130달러 수준에 형성될 경우 한국의 기업 마진 및 경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보안이 곧 신뢰... 금감원, 감독 패러다임 전환

국회·금융협회·보안업계 간담회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바꾸고
내부통제 부실, 무관용 원칙 적용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IT·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보안이 곧 시장 신뢰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회,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학계 및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보안 수준과 감독 방식만으로는 IT·정보보안 사고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 속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 은행·금투·보험·여전업권 협회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강병훈 KAIST 교수, 민기식 SK윌러스 대표, 팔로알토네트웍스 관계자 등 정책·산업 전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권 사고를 보면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안 취약점 방지, 용량 미확충 등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 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감독 방식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조치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동시에 침해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

응 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국회와 금융권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금융협회는 업권 전반에 보안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IT·보안 인력과 투자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도 “해킹 등 IT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삼전·하이닉스 담은 채권 ETF

KB자산운용과 동일 구조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KB자산운용에 이어 삼성자산운용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면서 우량 채권으로 안정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같은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를 7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자산의 절반을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최대 25%씩 비중으로 투자한다. 나머지 50%는 국고채와 같은 국내 우량 채권으로 채워 자산배분 효과를 극대화했다.

최근 미·이란 전쟁 위기 등 대외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점에 이 ETF는 주



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과 채권의 이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이익은 쟁기, 하락장에서는 50%의 채권 비중이 완충 작용을 하는 전략이다.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투자 흐름 한눈에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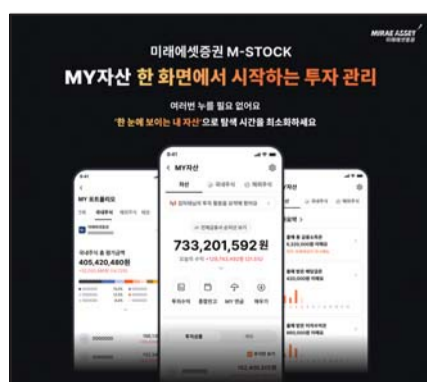
분산 자산정보 통합·UX 재설계
금융투자 최적화된 디자인 시스템

미래에셋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의 핵심서비스인 ‘MY자산’을 전면 개편하며 ‘M-STOCK 3.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분산된 자산 정

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을 재설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현황, 세부잔고, 투자수익, 투자활동 등 정보가 각각 분리돼 있어 투자자가 여러 화면을 오가며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MY자산’ 서비스에 금융투자에 최적화된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면 구성과 정보체



를 전면 재정비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RIA 잔고 1000억 돌파

엔비디아·테슬라 시·빅테크 중심 입고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증시 복귀 계좌(RIA)가 출시 2주 만에 잔고 1000억원, 계좌 수 1만개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첫 선을 보인 RIA 계좌는 출시 직후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빠르게 안착했다.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고객들이 RIA 계좌로 가장 많이 입

고한 종목은 엔비디아(200억원)였으며, 테슬라(80억원), 애플·알파벳(각 50억원)이 뒤를 이었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재투자해야 하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